

청년녹색당 대토론회

청년녹색당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에 관하여

- ◎ 일시 : 2016년 9월 3일 (일), 14시~18시
-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칼리지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 주최 : 청년녹색당

대토론회 행사 순서

발제 (사회 : 비연)	
14:00 - 14:10	기조발제 - 도돌이표 끊기: 청년녹색당 출범 4년,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사이에서 발제자 : 변규홍
14:10 - 14:20	청년녹색당이란 조직의 필요성과 FAQ 발제자 : 안알아
14:20 - 14:30	청년과 청년녹색당의 오늘,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안 발제자 : 신지예
14:30 - 14:40	청년녹색당,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 - 청년녹색당 밖에서 생각해 본 청년녹색당 발제자 : 녹다(이선미)
14:40 - 14:50	녹색당, 청년, 부산 발제자 : 전미경
14:50 - 15:00	휴식
조별 토론 (진행 : 조별 이끔이)	
15:00 - 16:00	조별 토론
16:00 - 16:20	휴식
16:20 - 16:40	조별 토론 결과 발표
자유 토론 (사회 : 비연)	
16:40 - 17:40	자유 토론
17:40 - 18:00	마무리 발언 및 정리

청년녹색당 대토론회 4대 질문
(1) 청년녹색당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 청년녹색당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 청년녹색당은 녹색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4) 청년녹색당의 존재 목적과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년녹색당이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행사 후 사진촬영과 뒷풀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 발제(14:00 - 14:50)와 조별 토론 결과 발표 및 자유 토론과 마무리 발언(16:20 - 18:00) 은 청년녹색당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평등문화 약속문

녹색당은 강령에서,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소수자를 소외시키는 관습과 사회제도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애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로 생태적·문화적·정치적·언어적·성적·종교적·영적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옹호하여 창조적인 연결망을 만들어 나갑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은 보호하고 다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삶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장애인·이주민·탈북주민·성 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다양성을 옹호하는 녹색당 강령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약속문을 모든 당 행사에서 함께 읽고 실천한다.

1. 우리 모두는 녹색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2. 녹색당 당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3. 당내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4. 당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5.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한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7.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주의한다.
8.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하지 않으며, 혐오 발언에 대해서 항의한다.
9. 연애와 결혼은 필수가 아님을 유의한다.
10.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을 시에 즉각 중단한다.
11.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경고하고 제지한다.
12.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본 평등문화 약속문은 지난 2016년 7월 10일, 녹색당 제44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현재 평등문화 안내서와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등문화 안내서의 자세한 사항은 녹색당 홈페이지의 다음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greens.org/?p=10897>

※ 청년녹색당 대토론회 행사 중 평등문화 침해상황이 발생하면, 오늘의 평등문화 현장책임자 비연(010-8439-0033)이나 변규홍(010-5231-7494)당원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당 청년 선언문

2012년 5월 13일 채택

기후 변화로 짧은 봄이 지나가고 찾아온 초여름, 녹색 청년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2012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에게 고등교육과 취업, 결혼은 이제 더 이상 행복과 성취의 상징이 아니라 기득권에 의한 착취, 폭력적인 사회의 재생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회는 청년에게 돈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가르치며, 돈을 벌기 위해 금융자본과 토건세력에게 노동력을 팔 것을 요구합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사라지고 탐욕만이 넘쳐납니다. 이로 인해 심화된 빈부격차, 급속하게 파괴되는 자연 환경, 기후변화, 공장화된 농업과 축산업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청년들은 더이상 한국 사회에 동원되는 ‘타자’이길 거부하고 ‘주체’가 되고자 청년 녹색당을 발족합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미래를 바라지 않으며, 미래를 담보로 오늘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주장해야만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외칩니다. 물질만능과 황금지상주의가 선전하는 걸만 번지르르한 가짜 행복 대신에, 자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자유를 외칩니다.

우리는 녹색 청년입니다. 지구 녹색당의 이념인 생명 존중과 평화, 인류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비폭력은 우리 녹색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의 시대정신입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반성하고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으며, 생태계와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연에 빚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쏘 만큼 자연에 돌려주는 생태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재생불가능한 자원 사용에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채택하여 핵폐기물 대신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 청년 녹색당은 비폭력 정신에 입각하여 전쟁을 반대하며 공정무역을 지지합니다. 청년을 착취하는 과도한 고등교육과 입시문화를 반대하며, 우리 스스로 청년이 물질적/정신적 결핍에서 벗어나 숨쉴 수 있는 주거환경과 생활문화를 창조할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고 일한 만큼 쉬는 조화로운 삶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학벌주의, 나이주의, 관료주의, 소비주의, 신자유주의를 배격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 녹색당은 녹색과 청년 의제 사안에 연대하며,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련 시민단체와 투쟁의 연대 그물망을 짜는 그물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꾸고 만들기 위해 앞장서 행동하며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 녹색당은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청년의 새로운 노래요 희망의 몸짓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자랄 것이며,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짙은 푸르름이 되어 이 땅의 생명을 키울 것입니다. 녹색당은 미래의 정당이며 청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녹색 청년의 이름으로 치열한 축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녹색당 청년 선언문은 2012년 5월 13일 열린 청년녹색당 출범식에서 50여명의 청년당원이 참석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도돌이표 끊기: 청년녹색당 출범 4년,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사이에서

변규홍

악보 이어그리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청년녹색당

이름	청년녹색당	
관련규정	<p>녹색당 당헌 제18조 (청년당원모임) ① 청년당원은 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합니다. ② 당내 청년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청년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 ③ 청년당원모임은 청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됩니다. ④ 청년당원모임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청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p> <p>청년녹색당 규약 제4조 (당원) 청년녹색당원은 녹색당 당규에 의해 청년당원으로 규정된 녹색당원을 말합니다.</p>	
인원구성	35세 이하의 모든 녹색당 당원 (단, 운영위원회에 탈퇴문서를 제출한 당원은 제외)	
인원규모	2664명 (2016년 8월 3일 현재)	전년 12월 선거권자 1,458명
예산규모	연간 600만원 (2016년 2월 녹색당 대의원대회 기준)	전년 12월 연간예산 220만원
운영위원	8명	변규홍, 비연 (공동운영위원장) 김여진, 스칼렛, 안알아, 오재석, 율몽, 이권우
집행부원	1명	명암 (회계)
상근활동가	0명	
사무실/회의실	없음	
등록 산하모임	5개	학교모임(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공회대) 및 의제모임(채식인 인권 연구)
선거방식	매년 한 차례 전국총회에서 현장투표를 통해 운영위원,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사업계획 승인	매년 한 차례 전국총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운영위원회로 사업계획을 위임	
총회 성사규정	전체 청년당원 중 1/30 이상의 현장 참석자와 위임장을 포함하여 1/10 이상의 참석	

저는 사퇴한 전임자의 뒤를 이어 2016년 7월 3일자로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전임자들이 상상했고 생각했고 활동해 온 청년녹색당은 어떤 공간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 활동들을 해나가면 좋을지 항상 고민해왔던 지난 2개월간의 경험과 아쉬움 탓인지 이번 청년녹색당 대토론회를 맞이하는 감상이 참 복잡미묘하답니다. 과연 오늘 토론회 자리에 나온 당원들이 느끼기에 청년녹색당의 지금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그려내야 하는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할까, 전임자들이 만들어 온 모습에서 지금 당원들이 원하는 모습이 이어지게 하려면 지금 나는 청년녹색당이라는 악보를 어떻게 이어그러나간다면 좋을까, 이런 많은 고민거리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청년녹색당을 만들어가고 싶은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의 이야기는 여러 발제자들에게 맡기고, 저는 좀더 그간 청년녹색당이 걸어온 길과 지금 이 순간의 청년녹색당의 모습,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다소 두서없는 발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돌이표1)의 발견: 3년 전의 청년녹색당 토론회와 오늘의 청년녹색당 대토론회

지난 2015년과 올해 2016년에 이어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운영위원의 사퇴는 4년이라는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청년녹색당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아주 낮은 일은 아닙니다. 2013년 여름에도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전원이 사퇴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맥락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청년녹색당의 운영을 책임지던 사람이 사퇴한다는 현상은 묘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6년에는 또 한 가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3년 9월 28일에 열린 <청년녹색당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토론회입니다. 지난 2013년 8월 15일, 2013년 당시의 공동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를 향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운영을 일삼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원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녹색당은 해산도 고려해야 한다는 청년당원 공동성명²⁾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문제제기를 받은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2013년 8월 22일자로 사퇴하고, 그와 함께 청년녹색당 사업을 도모하려던 운영위원들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녹색당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오굴희 당원은 발제에서 청년녹색당의 자동가입 체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습니다.

“또한 청년녹색당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당원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이 청년녹색당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당원들도 있다. (중략) 무엇보다 청년당원 개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나이에 의해 선택권을 가지지 못한 채 자동가입이 되는 현재의 방식은 청년의제가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압적인 것이다.”

이번 2016년의 대토론회를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의 당원들은 오굴희 당원이 적은 것과 비슷한 이유로 자동가입 체계 유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몇 문장을 옮겨적으면 이렇습니다.

“연령이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녹색당의 청년 의제에 공감하진 않는다.” “스스로를 청년당원으로 규정하지 않고 청년녹색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굳이 청년녹색당에 가입되어있을 이유는 없다.” “청년과 비청년의 구분을 지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비록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3년 전 청년녹색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진단하면서 이야기했던 문제의식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조금은 속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의 대토론회가 청년녹색당이라는 악보에 도돌이표를 찍는 결과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년동안 계속 맥을 관통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아직도 우리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이나 새로운 노력, 혹은 그동안 기울이던 노력의 결실을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1) (명사) 악보에서, 어느 부분을 되풀이해서 연주하거나 노래하도록 지정하는 기호

2) “1400 청년 당원들 중에는 자신이 청년녹색당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당비가 배분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녹색당 임시운영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규약 개정, 청년녹색당의 재조직(혹은 의제 모임화), 심지어 해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청년 당원들이 청년 녹색당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날을 고민하는 열린 토론의 장을 열어낼 것을 촉구합니다.”

악보의 시작: 처음에 청년녹색당을 만들었던 이유와 청년녹색당에 기대하는 활동들

2012년 5월 13일, 녹색 청년들이 바라본 시대상과 녹색 청년들이 지니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담은 녹색당 청년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청년녹색당이 발족했습니다.³⁾ 이후 2012년 11월 17일 열린 청년녹색당 제1차 전국총회에서 청년녹색당 규약이 제정⁴⁾되면서 청년녹색당의 존재목적과 정체성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아마도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청년녹색당 : 정치, 경제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청년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 청년의 시대정신을 갖고 주제로 살아가며 국내외 녹색의제, 청년의제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는, 35세 이하의 녹색당 전체 청년당원들의 모임.

청년녹색당이 이러한 존재 목적을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그 이후로는 얼마나 공유되었을까요? 2013년 토론회 설문조사와 2016년 대토론회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청년 녹색당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청년 녹색당은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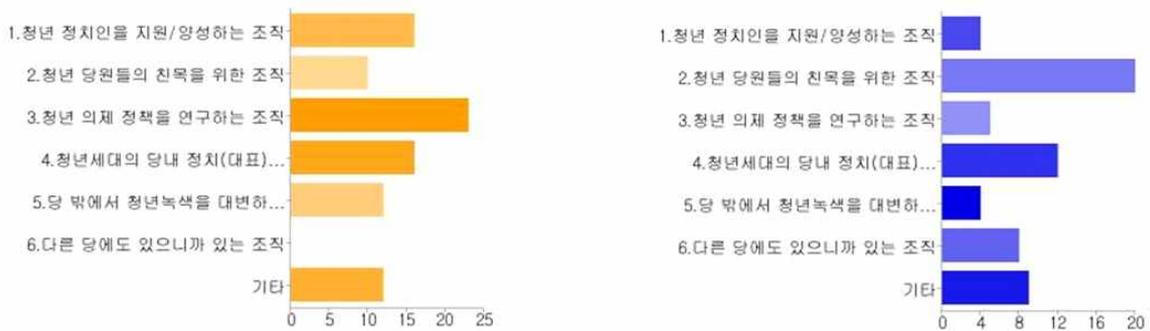


그림 1 : 2013 토론회 설문조사 - 앞으로의 청년녹색당과 현재의 청년녹색당의 모습 (35명 참여)



그림 2 : 2016 대토론회 설문조사 - 청년녹색당이 해야 할 일과 청년녹색당의 지금 모습 (101명 참여)

3) “청년들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 동원되는 ‘타자’이길 거부하고 ‘주체’가 되고자 청년 녹색당을 발족합니다. ... 우리 청년 녹색당은 녹색과 청년 의제 사안에 연대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련 시민단체와 투쟁의 연대 그물망을 짜는 그물코가 될 것입니다.”

4) “청년녹색당은 한국사회에 동원되는 타자임을 거부하고 지구 녹색당의 이념인 생명존중과 평화, 인류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비폭력 등 녹색청년이 살아갈 미래의 시대정신을 가지며 세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사회·정치적 청년 소외·극복을 위해 활동합니다.”

달라진 가락: 한국사회의 청년녹색당을 넘어 녹색당의 청년녹색당을 생각하다

2013년의 설문조사와 2016년의 설문조사 양쪽 모두에서 청년녹색당의 현재의 모습은 청년당원들의 친목을 위한 조직이며 좀더 중요하게는 청년의제나 청년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당원들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의 설문조사에서는 2013년까지는 없던 새로운 항목이 등장하고, 이 항목이 청년녹색당의 지금의 모습에서도 갖춰야 하는 모습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청년당원들의 녹색당 결합과 의사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31일 열린 청년녹색당 제5차 전국총회에서 채택된 청년녹색당 2015년도 사업평가 문서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의 청년녹색당 운영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청년녹색당은 활발한 연대활동, 기자회견, 토론회, 논평, 다량의 언론 보도를 통해 청년녹색당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한국 사회에 녹색 가치를 전파하며 청년 정치세력화를 통해 기존 정치로부터 소외된 모든 시민의 정치세력화에 앞장섰다. 지역당(광역시도당) 등의 당내 조직에 합류를 어려워하는 청년당원들이 문턱이 낮은 청년녹색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소속감을 갖는 데 기여하였다.”

2016년 대토론회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진단에 공감하는 응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속에서 녹색당원들을 만나보면, 일반화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기에 많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렇고, 그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당원들도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당비'를 내는 정도의 선에서, 혹은 그림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당내 선거권'을 실행하는 정도의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개개인들에게 '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희망시 탈퇴 가능한 자동 가입 체계'는, 당 차원에서 어떠한 '소속감'을 개개인에게 부담없이 내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은 사실 쉬워도,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어렵거든요.”

자동가입 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원할 경우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청년녹색당을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당원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녹색당에 입당할 때 자동으로 자신이 선택한 활동지역의 광역시/도 녹색당에 소속되면서 동시에 청년녹색당에도 소속된다는 것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년녹색당 규약 제6조의 탈퇴조항에 대해서도 아직 홍보가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동 가입 체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거나, 혹은 희망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응답 107개) (응답 10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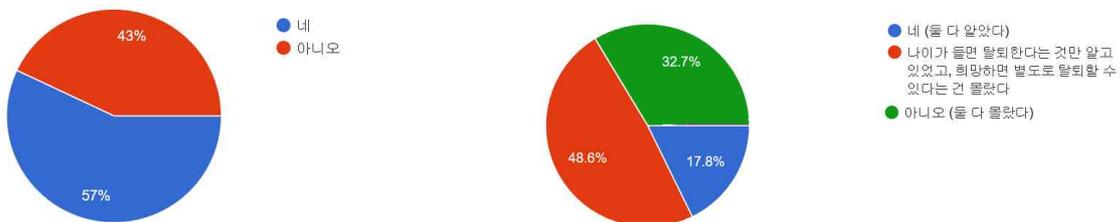


그림 3 2016 대토론회 설문조사 - 자동가입 체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함께하고 싶은 가락: 들어본 적이 있는 청년녹색당 활동, 참여한 적이 있는 청년녹색당 활동

자동가입 체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큼, 청년녹색당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참여도 또한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2013년과 2016년의 설문조사 모두에서 50%를 약간 밑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림 4 청년녹색당 행사/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 (왼쪽: 2013년, 오른쪽: 2016년)

이런 참여율에서는 당원들이 알고 있는 청년녹색당의 활동과, 실제로 참여하는 청년녹색당의 활동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6년의 설문조사에서도 그러한 점이 다소 드러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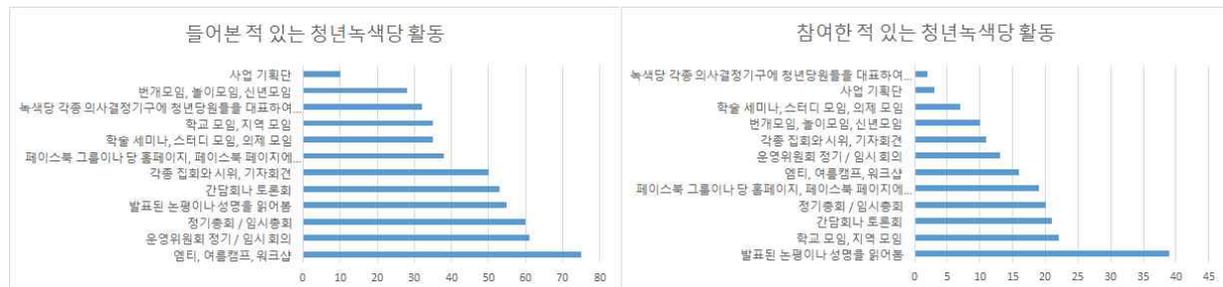


그림 5 청년당원들이 들어본 적 있는 / 참여한 적 있는 청년녹색당 활동 목록 (2016년, 101명)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가장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참여자가 있는 여름캠프, 운영위원회 회의, 정기총회인 반면,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당원들은 청년녹색당에서 발표된 논평을 읽어보거나, 학교모임에 나가거나, 각종 토론회에 참석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설문조사에서, 참여했던 청년녹색당 사업들 중 가장 좋았던 사업, 가장 나빴던 사업을 적어달라는 질문에는 공통적으로 가장 최근 발행된 “게임 속 목소리가 지워져도 우리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논평이 꼽혔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응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좋았던 사업	싫었던 사업
방가방가 신입청년당원환영회. 신규 당원들이 녹색당에 쉽게 접근하고 친해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총회, 통과시켜야 할 안건이 너무나 많았다
강남역 정당연설회	여름캠프.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했다. 굳이 장소를 그곳으로 잡을 필요가 있었을까.
파당 모임. 녹색당 정책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자리여서.	다양한 지역의 당원 참여가 되지 않은 사업들에 아쉬움이 남음.

치우친 가락: 수도권 중심, 특정 청년 중심의 청년녹색당 사업 진행

2016년 설문조사의 싫었던 사업에 대한 응답 중 단연 눈에 띈 것은 서울중심의 청년녹색당 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무려 72.9%가 서울특별시 /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당원이라는 점은 어찌 보면 그만큼 전체 녹색당원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당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청년녹색당의 활동에 비수도권 당원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이신가요? (응답 10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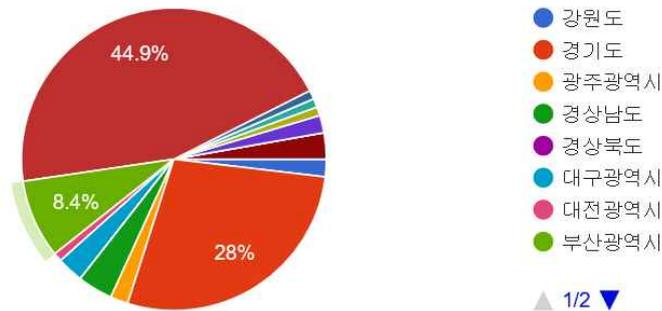


그림 6 거주지 응답 (2016년 설문조사)

이에 대해 2013년 토론회에서 오규희 당원은 발제문을 통해 자동가입제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청년당원들과 자동가입되어 청년녹색당에 소속된 청년당원들 간의 이러한 괴리는, 청년녹색당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준다. 예를 들어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위임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청년녹색당의 주요 활동무대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의 청년당원들은 그런 활동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자체적으로 청년녹색당이 조직되지 않는 한, 청년녹색당 활동의 수혜는 수도권의 청년당원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2015년 청년녹색당 사업평가문에서도 2015년 한 해 동안의 청년녹색당 사업운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중심, 대학 중심, 운영위원 중심, 소수 운영위원 편중의 청년녹색당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운영위원회 및 조직 전반의 안정, 청년당원 전반의 소속감 고취와 책임있는 조직 운영 및 당원 모두와 함께하는 사업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또다른 가락: 대안적인 삶을 나누고 이를 위한 정책을 탐하는 공동체로서의 청년녹색당

2013년 토론회에서 임기웅 당원은 당위로서만 존재하는 청년녹색당이 아닌, 구체적이고 선명한 비전을 지닌 청년녹색당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대안적인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청년녹색당에 대한 상을 발제했습니다.

“반정당적 정당은 그런 뜻이라 생각한다. 의회에 들어가되 기존 체제외의 것을 만들어가는 작업,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이미 실행하고 있지 않은가. 석유고갈을 대비해 석유를 쓰지 않는 유기농법 농사를, 혹은 도시 텃밭을 만들어보고 재활용, 재사용 옷감을 만들며 아파트가 아닌 손수 집을 짓는 당원들이 있다. 이런 정신들을 청년정책에 적용해 상상해보자. (중략) 청년 주거권 문제를 들고 나와 아파트, 기숙사 설립을 요구할 때 새로 짓는 것을 넘어 구도심 빈집을 빌려 사는 운동을 법제화 정책화 하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안다.) 이 체제에서 천만원 넘는 대학등록금 대신 대안 대학교 (대안학교의 확장)를 만드는 정책이나 체제가 주는 기본소득 대신 기본 협동조합을 외칠 수 있는... (중략) 청년고용률 의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산업화 시대에 기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 (중략)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 할 수 있지만 기존 화폐 1만원 대신 대안화폐를 더 실험해보는 정신.”

부족한 가락: 상근활동가가 없는 청년녹색당

2013년 토론회에서 이환희 당원의 발제는 청년녹색당의 존속을 위해서는 유급 상근활동가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운영 및 기획은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주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실무들은 업무강도에 걸 맞는 정당한 임금을 받는 유급 상근자가 맡는 방향으로 분업이 이루어진다면, 운영진들의 피로도도 반감되고 일에 대한 능률이 오르면서 청년녹색당이 훨씬 효과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도돌이표 끊기: 어제로부터 배우는 오늘, 새로운 내일을 빚어내기 위하여

누군가는 청년녹색당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에 대한 차별이 없고 지역당의 운영위원 중에도 청년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세대간의 갭이라는 것을 당원간에 느끼기 어려운 녹색당에 청년녹색당이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으니 이제는 발전적인 해체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청년이라는 낱말이 가지는 뜻 중 하나가 과도기인 것처럼, 누구나 언제까지고 청년에 머무르지는 않는다고들 생각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청년녹색당 또한 과도기를 지나고 그 역할을 다하면 해체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청년녹색당이 해체하는 그 날이 왔는지, 아닌지,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제의 누군가도 내일의 누군가도 아닌, 바로 오늘의 녹색당 청년당원들이 직접 던지고 직접 답할 때 가장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도돌이표를 끊고 새로운 가락을 이어가는 청년녹색당을 이야기하는 청년녹색당 대토론회, 4명의 발제자의 이야기와 함께 당원 여러분의 생각을 한껏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녹색당이란 조직의 필요성과 FAQ

안알아

1. 청년녹색당은 다른 당원모임(지역/의제)이 흡수하지 못하는 청년 당원을 끌어들이고 진성 활동당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등한 분위기의 조직입니다.

- 녹색당원은 전국당원대회, **지역별 녹색당, 의제별 모임, 청년녹색당**, (홈페이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청소년녹색당**)을 통해 당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당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 기구로는 대의원대회와 전국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녹색당 홈페이지 - 녹색당의 조직구성 >
- 제가 생각하는 '녹색당 내 조직활동'은 **'한 당원이 녹색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의 통로를 상황에 맞게 늘리거나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녹색당의 신입당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저에겐 과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제가 사는 곳에 가까운 '관악동작녹색당'에 찾아가거나, 현재 제가 관심있는 '퀴어, 페미니즘, 균평화' 등의 의제 모임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22살이어서 청년녹색당이나 청소년녹색당의 모임에 찾아가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저는 위 모임들에 몇 번 나가고 참석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이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는 없을 것 입니다. 제가 '진성 활동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1) 녹색당이 어떤 곳인지 알기까지 '당원교육/적용 기간'이 필요합니다
 - 2) 적용 기간 동안,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여자라는/퀴어/장애인이라는 등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 3) 결정적으로 '그래, 이곳은 활동할 만한 곳이구나!'라는 확신과 애정이 생겨야 합니다.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이상, 저는 설렁설렁 참석하다가 안 나오는 당원이 되겠죠.. ㅎㅎ
- 물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려는 지역별 녹색당, 의제별 모임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당원교육, 평등문화 등).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원교육사업을 진행할 만큼 활성화 된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별 녹색당은 아직까지 나이 많은 남성당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 많으며, 여러 차별적인 발언이나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 청년녹색당은 아직 녹색당에 애정,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당원들을 '진성 활동당원'으로 이끌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년녹색당은 2016년 한 해 동안 신입당원환영회(방가방가)를 꾸준히 진행하며 녹색당의 조직, 활동 등을 알리는 교육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매 사업마다 시작 전 '평등문화 약속문'을 읽고, 평등문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반성폭력내규'를 만들어 읽는 등 '불편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발제를 맡게 된 저 또한 청년녹색당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으면서 녹색당을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녹색당에 애정과 소속감을 느끼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ㅎㅎ

2. 청년녹색당은 결국 다른 당원모임(지역/의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입니다.

- 제가 청년녹색당 활동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듣는 질문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나가면서 일종의 FAQ방식의 발제를 진행하려 합니다ㅋㅋ
- **녹색당이 잘 되려면 의제모임과 지역별 녹색당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느냐(정책개발, 선거 조직, 풀뿌리 정치 등)? 왜 청년녹색당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느냐?** → 우선 의제모임도 책 읽는 세미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지역별 녹색당도 친목과 피케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사안의 연대나 논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사실 재미없고 부담은 크면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활동을 하려는 당원은 결국 녹색당에 ‘애정을 느끼는’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청년녹색당은 그런 ‘진성 활동당원’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며, 결국 청년녹색당은 ‘에너지 분산’이 아닌 ‘에너지 생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녹색당 내에서도 자발적으로 ‘의제 모임/지역별 녹색당’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녹색당 내에 ‘채식인인권연구모임’, ‘퀴어/페미니즘 의제모임’이 있고, ‘녹색당원들의 쑥쑥덕’ 행사나 ‘퀴어/페미니즘 의제모임’에서는 페미니즘 등에 민감하지 못한 지역에서 우리가 바꾸려는 노력을 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왜 지역별 녹색당에 청년당원들이 참여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녹색당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더욱 필요 합니다.
- **‘청년’이라는 정체성이 별로 없는 당원들도 있지 않느냐? 왜 자동가입 형태이어야 하는가?** → 우선 저는 이러한 고민과 질문이 청년녹색당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청년녹색당과 지역별 녹색당은 소속 지역에 따른 자동가입이지만, 청소년녹색당과 의제 모임은 선택가입입니다. 즉, 네 모임에 다 적용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청년녹색당과 지역별 녹색당이 선택가입이었다면 총회 때마다 당원들이 오지 않아 고생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또는 당원가입할 때 관심있는 의제로 체크한 의제모임으로의 자동가입 형태였다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의제모임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모든 모임이 자동가입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쯤 내가 소속된 곳에 나가봐야지’라는 생각을 지닌 당원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질문이 지금까지 주로 청년녹색당에만 적용되었던 것은 ‘이중잣대’라는 차별이 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 **청년녹색당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거나, 여러 청년문제(등록금, 주거 등)에 연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인원수에 비해 역량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 정책 개발, 문제에 대한 연대 및 논평은 대표적으로 ‘역량이 많이 드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녹색당은 그런 역량을 기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논평을 발행하고 있으며, 소진되지 않는 선에서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이 부족했던 이유도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청년녹색당은 소속 당원수에 비례하는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여전히 상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600만원의 예산을 받은 것이며 2015년의 경우 1/3에 해당하는 200만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개발 및 연대’는 청년녹색당뿐만 아니라 지역별 녹색당, 의제모임에도 해당되며 여기까지 진행하는 곳은 원래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 위 질문을 가지고 조직의 존재/쓸모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청년녹색당에만 적용되었지, 지역별 녹색당과 의제 모임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자’에 해당하는 집단에 좀 더 높은/힘든 기준과 행동을 요구합니다(남자는 일

만 하면 되지만, 여자는 일도 하고 남자를 보살피기도 해야함). 저는 이러한 질문들이 마찬가지로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3. 앞으로의 청년녹색당은? (이라고 쓰고 '뭐지 이 생똥맞은건??'이라고 읽는다)

- 가장 평등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녹색당을 알아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평등과 관련해서 가장 예민한 청년에게도 '가장 낮은 문턱의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조직으로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더 많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녹색당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방가방가'라고 생각합니다.
- 평등 혹은 청년과 관련된 의제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면 합니다. '채식인인권연구모임' 그리고 최근에 생긴 '퀴어/페미니즘 의제모임'뿐만 아니라, 연령주의/건강권/군평화/기본소득 등등의 의제모임이 청년녹색당 내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러한 청년의제모임이 '청년정책위원회'를 꾸리고 나중에는 '청년정책'을 낼 수 있으면.. ㅎㅎ
- 녹색정치에 대한 고민, 논평을 작성하는 법,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법, 회의에 참여하고 진행하는 법 등 녹색당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훈련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괜찮은 동료들 만들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즉, 장기적인 녹색당 활동에 필요한 사업들이 이뤄지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꼭 상근자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청년과 청년녹색당의 오늘,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안

신지예

비대한 몸집

2016년 총선을 거치며 녹색당원들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선거 기간 동안 현 당원 수 1/4인 2,500명의 신규 당원이 가입하여 현재 당원 1만 명에 가깝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청년녹색당의 당원 수도 증가했다. 현재 2,600명~2,700명이라고 들었다. 서울시 전체 당원 수가 약 3,000명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큰 숫자다. 현재 녹색당 내부의 모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회원 수가 10명인 단체, 100명인 단체 1,000명 단체 별로 사업의 종류와 예산에 큰 차이를 보인다. 회원 수가 늘어갈수록 단체의 과업과 책임감 또한 막중해진다. 이렇게 집단의 몸집이 커지면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체계화, 모듈화 나아가 관료화 된다. 2,700명의 가입인원을 가진 청년 녹색당은 얼마나 체계화 되어야 하나. 그 이후에는?

누가 청년인가?

X세대, 밀레니엄세대, 88만원세대까지 수많은 집단에게 이름이 붙여졌지만 '청년'이란 이름표는 더 특별하다. 이를 수 없이 방대하면서도 모호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을 비롯해 다른 지자체와 정부기관의 청년 연령 규정도 각각 다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15~29세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3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와 중소기업청은 사업에 따라 39세까지도 청년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살부터 45살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괴기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 20살부터 34살의 청년은 천만명이 넘는다. 이렇게 수도 많고 기준도 모호하니 겪고 있는 문제도 천차만별이다. 어떤 청년은 백수생활을 전전하고, 어떤 청년은 일반직장을 다니고 어떤 청년은 대학을 다니고 어떤 청년은 부모에게서 빌딩을 물려받는다. 청년으로 묶일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자의 말처럼 88만원세대와 888만원세대가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마치 청년을 위한 특정 의제가 있는 것처럼, 청년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어버리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것처럼 된다.

생기는 문제 1 : 불가능한 청년 정치 세력화

청년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정치 운동을 벌여나갈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청년의 정치 세력화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단체 중 청년단체라고 호명되는 단체 A와 단체 B의 사례를 들여다보자. 이들이 지칭하는 청년의 폭은 좁고 구체적이다. A단체의 사업 대상 중심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구하기 전의 '사회이행기' 단계에 있는 청년과 저소득 청년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이 아닌 '빈 구역'을 파고든 것이다. B단체 같은 경우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이 중심이다. 알바, 계약직 등 기존 노동운동이 품고 있지 않은 층위를 대변하며 사업 중이다. 이 두 단체는 지난 총선에서 제 역할을 해냈고 청년 의회, 청년 정책네트워크 등 서울 조직을 넘어 전국 조직을 만들고 있다. 청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타겟을 설정했기 때문에 메시지도 명확하고 사업도 분명하다. 청년이라는 상징을 이용하여 뜻하든 뜻하지 않든 세력화를 진행 중이라 볼 수 있다.

생기는 문제 2 : 비'청년'의 배제

다음 문제는 청년녹색당에서 청년을 호명했을 때 결국 청년녹색당이 원하는 '청년' 만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위원장 후보로 나온 김주은 당원은 청년 녹색당에 속해있지만 청년녹색당이라고 볼 수 없다. 애초에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럼 나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지역 활동은 했어도 청년녹색당 활동은 하지 않았다. 이곳은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직장을 다니는 나로서는 문화적 갭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정리해보면 청년녹색당은 특정 나이 때, 특정 신분 혹은 특정 문화적 바탕을 공유하는 소수 집단이 활동 하고 있다.(당연하다. 애초에 모든 청년을 대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으로 "애초에 나이가 다르면 어떤가? 두발자유운동, 청소년 운동은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만해야 하고 청년운동은 청년만 해야 하나? 모든 세대가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운동을 견인해나가는 것이고 그 정치를 하자고 정당에 들어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 혹은 35세 이상 당원 혹은 노인 당원 있다고 치자. 그들이 당사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인간이지만 동물권을 이야기 하는 것처럼, 노인이 아니지만 노인문제를 대변하는 것처럼, 어린이가 아니지만 어린이 의수에 문제제기 하는 것처럼 당사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의지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고등학생 두발자유화를 이루겠다는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청소년 녹색당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 모임에서 반대한다면 녹색당 안에서 청소년 의제모임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것인데 현재 구조상 한 모임이 특정 연령층의 모든 의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제안 : 가입 절차 변경, 연령구분 적절성 검토, 사업 목표 검토

그래서 제안한다. 청년녹색당은 현재 당원 가입하는 모든 당원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형태이다. 나는 작년까지 내가 청녹당인 줄도 몰랐다. 이런 당원들이 꽤 있을 것이다. 특정 나이에 있다고 해서 그 이슈 모임에 가입시키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 기존 의제모임처럼 당원 개인 신청으로 가입 구조를 변환하자. 이후에 청녹당이 어떤 이슈를 가져갈지는 운영위원과 모임 당원의 판단에 맡겨야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 했던 이유처럼 연령에 따른 구분에 대한 적절성도 검토해야한다. 현재 정책상 청년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원받아야 할 대상의 범위가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 때문이다. 청년의 정치세력화를 정말 해나갈 것이라면 20세~34세 라는 모호한 연령 구분을 폐기하자. 범위를 '대학/대학원생' 이나 '청년 의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당원'으로 좁혀 관련 의제에 충실히 대응하는 편이 낫겠다. 조직은 더 날렵하게 움직일 것이고 사업목표는 더 명확히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청년녹색당,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

<청년녹색당 밖에서 생각해본 청년녹색당>

녹다(이선미)

발제에 앞서. 주의

이 발제는 청년녹색당이 앞으로 당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위치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공동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분들의 논의를 거친 결정, 혹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년당원들의 의견 나눔을 통한 방향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해보는 한 당원의 오지랖입니다. 그리고 먼저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녹색당 청년당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입니다. 잠깐만 참고 들어주시고 마음껏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생애 첫 정당가입.

2014년 지방선거에 녹색당 시장 후보가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는 녹색당이라는 것은 들어보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였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시장 후보가 나올 정도라니, 관심이 없던 동네 선거에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웅, 새로운 시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회사에 다니며 주섬주섬 아주 조금 선거를 도운 것이 계기가 되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 당원도 되었어요.

2015년 2월, 총회가 성립하려면 정족수가 차야 한다는 지숙의 전화를 받고 얼굴 비치려 처음으로 과천 녹색당 총회에 갔습니다. 총회에서 덜컥 공동운영위원장도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다른 분들이 정말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자취를 하는 중이고 가족중에 반대 의견도 안들을 자신이 있으니(?) 당장 큰 어려움은 없나? 하며 두려움 반 두근거림 반으로 공동운영위원장 후보를 수락했습니다. 다들 저를 거의 처음 만나는데도 어떤 일인지 믿고 동의해주셔서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로 2015 과천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쪽 알아온 사람들이 동네 사람의 전부였던 저는 녹색당 당원이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관계 밖에서 새롭게 만난 나와 지향점이 같은 많은 사람들. 나의 나이와 경험 없음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신뢰하며 경청하고 있을 자리를 내어준 과천녹색당의 친구들과 함께 지금까지 때로는 끈끈하게, 상황에 따라 때로는 좀 느슨하게 좋아하는 녹색당 당원으로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청년녹색당이 있었다니. 아니 그럼 나는?

그렇게 2015년 3월 처음 전국운영위를 갔을 때 청년녹색당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놀랐습니다. 당원이 된 후로 청년녹색당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럼 나는..? 과천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나는 청년이 아닌가? 라는 가벼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당원이 되었고 계속 그런 위주로 당원 활동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후에도 청년녹색당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뭐지? 저분들과 나의 다른 점이 뭘까 하는 고민만 가진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지랖1. 평등을 위해, 청록이 없어야 하나?

그러던 중 2015년 8월에 발생한 영덕 탈핵 버스 및 청년녹색당 여름캠프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국운영위에서 보고하고 피드백 등을 듣는 상황이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청년녹색당의 발언이나 요청 등이 동등한 레벨로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녹색당은 기존에 있는 어떤 정당보다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야기들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이기에 앞으로 더 예리하게 고민하고 바꾸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녹색당은 당시에 이러한 사건의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미숙함이 계속 지적만 받는다고 느꼈고, 누군가 경험 있는 당직자가 곁에서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인상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분들도 당황한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응과 처리 과정의 미숙함에 대한 판단과 지적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받았던 환대와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발언을 해오지 않았음에도 전국운영위나 활동하고 있는 지역당 모임 안에서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혹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발언의 위계에서 뒤로 밀려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같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니 아무래도 연령대로 인한 공감 때문인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짧은 고민 끝에 “청년”으로 모여있다는 것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전문성과 무게감을 적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녹색당이 아닌 지역당이나 전국당에 바로 결합하여 활동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 아닌 그냥 본래의 직책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혹은 청년으로서가 아닌 똑같은 한 명의 당원으로서 다른 당원들, 당직자들과 함께 일하게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청년”들끼리만 묶이게 되는 것에서부터 나이로 인한 단절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따로 묶는 ‘청년녹색당’이 꼭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청년세대가 어렵기는 하니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청년녹색당은 사라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혼자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당원 활동을 하면서 청년녹색당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원 가입 시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청년녹색당이라는 모임은 저의 머릿속에 존재 여부가 명확하게 인지된 모임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다양한 정책활동을 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들과도 잠시 교류하게 되면서, 어느새 머릿속에는 청년녹색당이 정당 안의 조직으로서 이리이러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지랖2. 총격. 정치조직이라면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

얼마 전 서울시의 “청년” 관련 정책이 또 다시 뜨겁게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저는 전국당 보다도 청년녹색당의 대응을 기다렸으나 봅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훨씬 의미 있고 중요

하다고 생각해왔는데, 그래서인지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년수당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었고 이 사안에 대한 청년녹색당의 입장이 궁금해서 변공동운영위원장님께 연락해 물어보았습니다. 마침 다음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 긴급 토론회에 청년녹색당에서 누군가 참석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청년녹색당은 이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일에 나왔던 청년수당 건에 대한 논평이 나온 것도 청년녹색당에서는 논평이 나온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년녹색당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청년녹색당이 정당 활동을 하는 청년조직으로서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온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 순간 당황스럽고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통화하며 갑자기 앞에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청년 의제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왜 “청년녹색당”으로 모이는 거지? 라는 생각, 내가 속한 당의 청년조직에 했던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슬프기도 했습니다. 좀 화도 났다가, 도대체 누구한테 서운해한다는 건지 싶다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등등..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다른 의견.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늦은 밤 긴급면담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길게는 아니었지만 늦은 밤에도 친구 몇이 급히 모여주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해왔던 청년녹색당의 필수 역할에 대한 생각부터 이 생각 저 생각을 거의 다 쏟아내고 나서 친구들에게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청년녹색당이 꼭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지금 같이 모이기 어려운 시기에 모여서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해주는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지금 조직이 갖추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기대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까지만 해도 친구들의 말이 다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당연히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의견을 듣고 나니 또 다른 의미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 답은 하나가 될 수 없지.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궁금하기도 해서 청년녹색당에서 주최한 총선간담회에도 참석하고, 간간히 청년당원들 모임을 스치듯 다녀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위주로 모여있는 청년녹색당은 분명 지금의 지역당에서 다루기 어려울 수 있는 청년들 간의 고민과 교류가 있고, 모임을 지속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분투를 해오고 있다는 것도 더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녹색당이 녹색당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조직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청년 이슈와 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지수와 저와 같이 지역에서 돈도 벌고 주로 생활을 하면서 동네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녹색당의 청년당원분들은 수도권에서 살거나, 수도권에서 일하거나, 수도권에서 공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지역으로 결합하기에 주요생활권이 다르다는 부분도 다시 생각해봅니다. 또한, 청년녹색당이 존재함으로 인해 당내에서 나이로 인한 불평등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개인이 아닌 집단의 의견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삶과 다양한 필요를 한가지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녹색당의 가치와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지요. 청년의 활동과 역할을 다수건 소수건 누군가가 규정짓지 않고 서로가 즐겁게 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녹색당 안에서 청년들의 활동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지랴 마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와 동시에, 다양함이 서로 공존만 하고 교류하지 못한다면 또한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각 지역, 혹은 전국당으로 바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청년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도 주체적인 청년 그룹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청년녹색당이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 방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청년녹색당은 독자적인 활동을 펼친다고 보기에는 현재 당내에서 고립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녹색당 밖에서 활동을 하는 청년당원들, 그리고 지역당, 전국당과 좀 더 활발한 교류를 하며 함께 의논하면서 가면 청년녹색당이 더 단단히 자리를 잡아가는 준비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색당 내적으로 청년녹색당이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화가 되어가면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더 다양한 욕구들이 생겨날거라고 확신해요. 그중 하나로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임도 생겨나고, 지금 당장 생각하기 어려운 많은 활동이 생겨나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아무튼,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랴 끝.



왜 부산에는
녹색당 청년모임이 없을까?
...그럼 내가 시작해볼까?



어떻게 당원을 모을까??

- 지속적인 모임(월 1회 이상)
- 홍보와 연락(SNS/문자와 전화)



재미와 의미
>>> 어떻게??

